



◀ 함평국향대전이 열리는 중앙광장에 높이 14.28m의 실제 크기로 설치된 독립문이 형형색색의 국화꽃으로 장식되었다.

▼ 국화 옷 입은 평화의 소녀상.



가을, 100만송이 국화의 유혹 시작됐다

YO
LO
떠나요
함평 국향대전

신이 세상을 만들고 꽃을 만들 때 가장 마지막으로 만든 꽃이라는 '국화'. 국화는 그만큼 인고의 시간을 거쳐 화려함을 꽃피운다. 그런 국화가 함평천지에 흐드러지게 폈다. 함평 하면 언뜻 나비축제를 먼저 떠올리지만, 100만송이 꽃을 피운 국향대전 또한 만만치 않은 규모와 볼거리를 자랑한다. 국향대전은 축제를 수놓은 모든 국화가 함평군이 자체적으로 생산해 전국에서 가장 알찬 축제란 평가도 받고 있다.

◇ 다양한 조경작품 '눈길'

'임시정부 100년! 백만송이 함평 국화와 함께'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함평국향대전은 내용 자체만으로도 벌써부터 큰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축제장 메인이라 할 수 있는 중앙광장에는 실제 크기의 독립문(높이 14.28m)과 백범 김구상 등 올해 주제를 형상화한 대형 국화조형물 7점이 설치됐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핑크블리 꽃길과 국화동산, 사계절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다양한 조경작품들도 관람객들의 시선을 붙잡기에 충분하다.

특히 박쥐가 갖는 오복(장부·부귀·강령·유효덕·고종명)을 함축한 '오복포란'이 축제 기간 중 상시 전시되면서 지난 4월 나비축제 때 큰 관심을 끌었던 황금박쥐 조형물의 인기를 그대로 이어갈 전망이다.

◇ 축제장 행사·공연 프로그램 '풍성'

축제장인 함평엑스포공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알록달록한 국화들이 관람 동선으로 반긴다.

오늘 엑스포공원 일원서 개막
상해 임정 수립 100주년 연계
첫 야간개장...조형물 등 선봬
버스킹·푸드트럭 등 행사 풍성

입구 원편에 위치한 다육식물관에는 2,500여 종의 다양한 선인장들이 장관을 맞이하는 병사들처럼 도열해 있다. 외국배양종 2,200종과 국내 배양종 300종이

개화시기, 무늬에 따라 배치됐다.

관람을 마치면 본격적인 국화의 향연이 펼쳐진다. 가장 먼저 천간작이 눈길을 끈다. 천간작은 하나의 뿌리에서 1,538송이가 핀다.

국화는 꽃잎의 모양에 따라 후물, 관물, 광물로 나누는데 후물 계통에서는 함평이 국내 최초로 천간작 재배에 성공했다.

축제장 옆 생태습지공원에는 '가을풍경길'을 테마로, 황금억새숲길, 코스모스길, 해바라기길, 팬나무숲 연인의 길 등이 조성됐다.

특히 핑크블리로 사면을 둘러싸 만든 산책길은 커플 관광객이라면 반드시 둘러야 할 최고의 인생 포토존이다.

다양한 국화 작품 못지않게 풍성한 문화예술 행사도 볼거리다.

함평군립미술관에서는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특별 소장품전이 열린다.

축제장 곳곳에서 열리는 수석전시회, 문인화 작품전, 시화전과 사진전, 추억의 통기타·클래식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도 진행된다.

◇ 야간 조형물 600여점 선봬

올해 국향대전은 나비축제를 포함한 함평 축제 최초로 야간개장(매일 저녁 7시~9시)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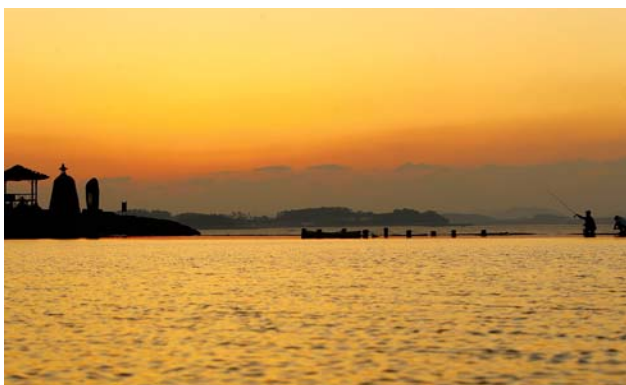
함평군은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추진했던 축제장 야간관광사업이 올해 일부 마무리되면서 경관조명을 비롯한 야간조형물 총 600여 점 정도가 축제장 곳곳에 새롭게 설치됐다.

매주 토요일에는 건물 외벽에 LED조명을 켜는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임시정부와 국화, 함평 나비 등을 색다르게 표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각종 버스킹 공연과 푸드트럭, 무료 야간 입장 등 예년과 다른 새로운 시도에 축제에 색다른 즐거움이 가미됐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365'를 통해 공개한 '지자체 행사·축제 원가 회계정보'를 보면 함평 국향대전은 지난 2016년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매년 20만명 이상의 관람객 입장, 최근 9년 연속 입장료 수입 6억원 돌파, 7년 연속 현장 판매액 10억원 달성 등 명실상부한 가을 대표 축제로서의 면모를 이어가고 있다.

/박선옥·함평=윤예중 기자

주변 가볼 만한 곳



아름다운 낙조 '돌머리 해수욕장'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한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이 해양관광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함평읍 석성리에 위치한 돌머리해수욕장은 1,000m에 이르는 은빛 백사장과 넓은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천혜의 절경을 자랑한다. 해질녘에 볼 수 있는 낙조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최근엔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이 준공됐다. 국비 42억5,000만원 등 총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해 돌머리해수욕장 일대에 해변탐방로, 해수욕장, 오토캠핑장 등을 조성했다.



가을 정취 물씬 '대동 팽나무숲'

대동면 향교리 팽나무숲은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에 제격이다. 천연기념물 제108호인 이곳은 400살가람 된 팽나무, 느티나무, 개서어나무, 푸조나무, 곰솔 등이 바닷바람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방풍림 역할을 하고 있다.

본래 함평읍 내교리에 있던 함평향교를 이곳으로 옮긴 후, 향교명문당 서남쪽에 있는 수산봉이 풍수학상 화산이어서 그 불기운을 막기 위해 내교리 향교터에서 자리던 나무를 옮겨 심은 것이라는 말이 전해진다. 넓은 벌판에 오묘조묘하게 자리 잡은 나무들이 수려한 경관을 선사한다.



만성질환 효과 '함평 해수찜'

함평 해수찜은 1800년대부터 민간요법으로 이용돼 온 신비한 치료법이다. 해수찜은 세종실록의 도자기 가마를 이용한 한증법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유황성분이 많은 돌과 삼투조금은 약초를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가열한 후 해수가 든 탕에 넣고 데워진 물로 찜질을 하는데 온천과 약침의 효능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

돌에 함유된 성분 덕분에 신경통, 산후통, 관절염, 피부병과 같은 만성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으로 입소문이 퍼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상하이 재현 '임시정부 청사'

함평에 있는 상해임시정부청사는 중국에 있는 청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을 뿐 아니라 책상, 침대, 각종 소품 등을 중국 현지에서 그대로 제작했다.

청사 1층 내부로 들어서면 임시정부 회의실과 빛바랜 태극기, 당시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부엌과 화장실을 볼 수 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 2층에 올라가면 조국 광복을 위해 애썼던 김구 선생의 집무실과 요인들이 근무하던 정부집무실이 위치해 있다. 3층에는 이봉창,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숙소로 이용했던 침실을 재현했다.